

해남읍 상권 공동화 대책 없나

도로망 확충 따라 주민들 목포·광주 등으로 발길 돌려 郡 대책 단발성 그쳐...주차장 등 장기적 대책 마련돼야

상권 공동화로 해남읍지역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나 해남군의 활성화 대책이 기존 사업을 되풀이하는데 그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읍에는 식품접객업과 숙박, 이·미용업소 등 1천130여개소가 등록돼 있으나 이중 40개소 이상이 빈 상가로 방치돼 있다.

특히 영업중인 상가 가운데도 20~30%가 상권 공동화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남읍 상권이 침체된 것은 경기 부진과 인구 감소 외에도 최근 몇년간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해남군 일부 면지역과 인근 진도·강진 주민들이 목포나

광주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최근 지역 상인들과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15대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지역적 특색을 살릴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읍 상가권을 변화시킬 장기적인 사업내용보다는 매년 내놓는 해묵은 대책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과제인 '해남읍 시내 환경정비 및 친환경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 도심 내 보행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 불법 노점상 정비, 주차공간 추

가 확보 등 1회성 단기 위주로 짜여져 있다.

또 ▲우리 지역 제품 사주기 운동 및 친절서비스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참여 프로그램 운영 ▲해남전 살리기 및 수변공간 개발 ▲해남문예창작도시 조성 등은 캠페인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해남읍·매일시장 활성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조기 집행 ▲대행사권 관광개발 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SOC 사업 추진 ▲지역개발 사업 활성화 ▲노인일자리 창출 등도 기존에 추진돼 온 사업들로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해남군이 주관한 읍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던 A모(45·음식점 업주)씨는 "군수만 바뀌면 내놓았던 반복적인 내용들뿐이고, 상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하나도 없다"면서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 해남의 미래를 내다보는 큰 틀의 리모델링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함평군 월야면 용원리 외세마을 주민들이 마을 모퉁에서 왕골 깎질 빚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500년 전통의 함평 왕골은 햇볕에 잘 말린 뒤 돗자리, 방석, 베개 등으로 재탄생된다. (함평군 제공)

“시청앞 로터리에 분수대 설치 어때요”

여주시 조성방안 토론회·엑스포 상징탑·거북선 주상도

여주시 관문인 시청 앞 로터리를 새롭게 조성하는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가 분수대 설치 검토하고 있다.

여주시는 최근 여주시청에서 오현섭 시장과 대학교수,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앞 로터리 조성 방안을 둘러싸고 토론회를 가졌다.

현재 로터리에 높이 20m의 소나무 12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소나무 활착을 위해 철제 지지대가 흉물스럽게 설치돼 있어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영대 김진기 교수는 “물과 햇빛 등 자연을 이용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공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수환경연합회 문갑대 사무국장은 “녹색이미지를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참석자들은 이순신 장군 동상,

‘모래·민어 축제’ 열린다 신안 대광해수욕장 8~9일

‘제 8회 신안 모래·민어축제’가 오는 8·9일 이틀간 신안군 입자면 대광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신안 민어 찾아 떠나는 오감여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그동안 지역 위주였던 ‘해변모래축제’에 대표적 수산물 이미지를 가미해 외지 관광객과 함께 즐기는 여름철 대표축제로 위상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는 식문화의 품격높이를 시작으로 개막식, 민어 시식회, 남도 국악 한마당, 바닷속 보물찾기, 머드 썰매대회, 모래성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9일에는 12km에 달하는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말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해변승마 퍼레이드가 열리며 전남도 바이오연구원에서 시험양식중인 민어도 전시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소규모 지역축제를 뛰어넘어 큰 대표축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中 절강성 서원단 답양 방문 한·중 ‘서원·향교문화’ 교류

중국 절강성의 ‘만송서원’ 소속 일행 18명이 지난 4일 답양을 방문했다. (사진)

이번 방문은 전통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답양 창평향교, 나주향교와 절강성 민송서원간 상호 방문 협약에 따른 것이다.

중국 방문단은 답양향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가사문학관 등을 둘러보고 양국간 서원 및 향교 문화



교류를 통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답양 창평향교 조인진 전교는 “중국에서도 향교문화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며 “이번 문화교류가 양측 서원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답양=정필수기자 bungy@

“고추·참깨, 영농교육 가장 필요”

영농 교육이 가장 필요한 작물은 고추와 참깨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영농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최근 농민 4천여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설문지를 돌려 이중 취합된 600여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받고 싶은 영농교육’으로는 응답자의 37%가 ‘고추·참깨 작물’을 꼽았으며 ‘벼농사’(36%)·‘파프리카 등 원예작물’(8%) 순으로 나타났다.

또 ‘농특산물 판매 소득 향상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작목별 재배 기술’이 45%로 가장 많았고 ‘관

화순농기센터 농업인 설문 벼농사·원예작물 등 뒤이어

로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44%를 차지했다.

이밖에 92%가 ‘영농교육이 농사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군 농업기술센터가 배부한 영농교육 활용도에 대해서는 96%가 6개월 이상 보관·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국산 국화 ‘백마’ 日 시범수출 호평

전남산 5만송이...로열티 확보 가능성도

국내에서 육성된 국화 ‘백마’ 품종이 최근 일본에 시범 수출돼 호평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26만본의 국화 백마 품종이 일본 최대의 국화 소비시기인 오봉절(8월 15일)에 맞춰 수출됐다.

이중 전남산은 5만여본이 수출됐으며 본격적인 수출기인 9월부터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백마는 농촌진흥청 국화연구소에서 지난 2004년 개발, 2006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신품종으로 연작 피해를 줄이고 수출 규격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양액(養液) 재배법으로 생산되고 있다.

김정근 전남도 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과장은 “국화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일본 등 외국 품종에 의존해 왔으나 국내 품종 육성이



로 해외 로열티 확보 가능성도 크다”며 “수출 증대를 위해 양액재배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현재 2ha인 백마 재배면적을 올해 4ha로 늘릴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

순천 왕지운곡지구 초교 설립 차질

내년 7월부터 입주...시행사 부지 확보 30% 그쳐 교육청 “토지 매입 못하면 아파트 공사 중지 요청”

학교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순천시 왕지운곡지구내 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순천시 왕지운곡지구에는 내년 7월 롯데인벤스 아파트 1천161가구와 오는 2011년 두산 위브 아파트 1천361가구 등 2천500여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06년 1만2천㎡ 규모의 초등학교 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으며 시행사 측

이 학교 부지 확보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30% 확보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인벤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7월 초등학교 개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올 연말까지 토지매입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부지 조성에 필요한 시기(5~6개월) 등을 감안하면 2010년 하반기에나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롯데인벤스 아파트 입주자들은 상당기간 자녀를 왕지운곡지구

에서 1.5~2km 떨어진 비봉초등학교나 봉화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트 시행사 측과 학교 예정 부지 소유자들 간에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학교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당초 2010년 3월로 예정했던 초등학교 개교 계획이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까지 학교 부지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 아파트 공사 중지를 순천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여순사건 새 암매장 추정지 발굴 작업

진실화해위, 새로운 증언 따라 5일부터 재개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희생당한 민간인 유해 발굴 작업이 장소를 옮겨 5일부터 재개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순천시 매곡동 매산동 경로당 위쪽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임매장지의 가능성이 희박해 지난 1일 발굴을 중단했다.

진실화해위 발굴단장인 박선주 총

북대교수, 책임연구원 김건수 목포대 교수, 순천시민연대 등은 4일 대책회의를 열고 새로운 증언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유해 발굴작업을 현 위치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10여m 옮겨 발굴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새로운 증언자 양모씨(72·순천시 석현동)는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곳 바로 옆에 살았다”면서 “여순사건 당시 여러 명의 사람이 집 옆에 있던 발

에 20여 구의 시신을 옮겨 묻어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양씨는 또 “매산중학교 당산나무 인근에서 마을 노인들이 살해된 뒤 나중에 옮겨져 묻혔다”며 “발 형태가 과거에 비해 약간 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발굴단 관계자는 “지형도나 고증 없이 증언자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땅을 잘못 파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1950~60년대 사건의 사진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이고 정밀한 사전조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올 여름휴가, 어촌체험 하세요”

영광군 9~10일 등 3회 실시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에서 1박 2일 코스의 ‘남도어촌 체험행사’가 열린다.

남도어촌 체험행사는 도시민들에게 전남 지역 어촌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수산물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9·10일, 23·24일, 다음달 20·21일 등 3차례에 걸쳐 열린다.

특히 조개잡이, 염전체험, 갯바위 낚시 등 서해안의 풍부한 갯벌 자원을 활용한 체험행사가 준비돼 있다.

참가 문의 (061-350-5736, 011-631-9289)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장성아카데미하우스 24일까지 최신 영화 무료 상영

장성아카데미하우스에서 5일부터 24일까지 최신 영화가 무료 상영된다.

시간은 매일 오후 1시와 3시로 화려한 휴가, 캐리비안의 해적, 괴물, 이장과 군수 등 28편의 영화와 차마고도 시리즈, 지구에서 달까지 등 12편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상영 일정표는 아카데미하우스 홈페이지(www.jsah.net)에서 조회하면 된다. /장성=정필수기자 bungy@

탐진강 1급수 향연...장흥 ‘정남진 물축제’ 성료

전국서 30여만명 방문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장흥 탐진강변 일대에서 열렸던 ‘제 1회 정남진 물축제’ 기간 동안 30여만 명의 관광객이 장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흥군은 이에 따라 300억원대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청정 1급수가 흐르는 탐진강과 석대보 평야, 모래톱길, 편백숲의 짙은 향이 감도는 우드랜드의 목재문화 체험장, 천관문학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미술관’ 등에 관광객이 몰렸다. (사진)

또 장흥 출신 작가와의 만남, 정



남진 물포럼 등의 부대행사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장흥군은 축제평가단을 통해 기

진도 ‘돛’ 고소득 각종 생산량 급증에 가격도 올라

진도군 조도면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돛이 가격상승과 생산량 증가로 어민들의 고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조도면의 돛 생산량은 지난해 830여에 비해 30%이상 증가한 1천170여대로 예상된다.

1kg당 가격 역시 지난해 2천800여 원보다 대폭 상승된 4천800여원에 수매대 전량 일련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돛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며, 특히 어린이 성장 발육에 필수적인 칼슘이 많아 일본에서는 학교 급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